

200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①	2	③	3	③	4	④	5	④
6	①	7	④	8	④	9	②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①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④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④	25	②
26	②	27	③	28	③	29	①	30	④
31	⑤	32	⑤	33	①	34	①	35	⑤
36	②	37	④	38	④	39	③	40	①
41	③	42	③	43	④	44	④	45	①
46	①	47	①	48	①	49	⑤	50	②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은 바다거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다거북은 바다 속에서 생활하지만 알을 낳을 때는 육지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어미 거북은, 해변이 어둠에 묻힐 때쯤 알을 낳을 장소를 고르지요. 그리고 20분~30분 동안 깊이 약 50cm, 넓이 약 20cm의 모래 구덩이를 만든 후, 보통 500개에서 1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는 구덩이를 다시 모래로 덮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부화한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은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깊은 모래 구덩이에서 나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새끼 거북들이 서로 도우면서 모래 구덩이를 빠져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에서 먼저 깨어난 새끼들 중 꼭대기에 있는 녀석들은 천장을 파고,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녀석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니면서, 다 함께 구덩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다거북의 탈출 성공률을 실험하기 위해 구덩이마다 알의 개수를 다르게 묻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1개씩 묻어 놓았을 때 27%, 2개씩 묻어 놓았을 때는 84%, 4개 이상을 묻어 놓았을 때는 100%에 가까운 탈출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1.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새끼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②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라는 내용은 없다. ③ 바다거북이 탈출에 실패하면 죽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의 행동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⑤ 새끼 거북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2번〉 이번에는 전통 혼례에 대한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손녀 : 할아버지, 옛날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나요?
할아버지 : 음, 요즘과는 많이 달랐지. 먼저, 신랑은 기러기를 들고 신부집으로 온단다. 그리고 혼례가 시작되기 전에 대청마루에 놓인 전안상에 기러기를 놓고 두 번 절을 했지. 이 때, 마당가에 짚불을 피우기도 했는데, 연기를 쐬면 혼사에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랑은 기러길 놓기 위해 전안상으로 갈

때, 짚불을 피워 놓은 곳을 거쳐 갔지. 그리고 전안상에 올려진 기러기는 마당에 차려진 초례상으로 다시 옮겨진단다.

손녀 : 그런데 신랑이 왜 기러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 음, 기러긴 짝을 잃으면 평생 홀로 살 만큼 금슬이 좋대.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

손녀 : 네에, 그렇군요.

할아버지 : 초례청은 보통 신부집의 마당에 마련되었지. 동서 방향으로 자리를 깔고 북쪽에 병풍을 친 다음 초례상을 한가운데 놓는단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초례청에 나온 신부가 초례상의 서쪽에 서고, 맞은편에는 신랑이 선단다. 그러곤 서로 절을 하는데, 이걸 ‘교배례’라고 하지. 이런 혼례 절차를 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보통 마을의 학식이 높은 어른신이 병풍 앞에 서서 순서대로 진행했지.

손녀 : 신랑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걸 봤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 : 그건, ‘합근례’라고 하는데,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화합하며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지. 우리 전통 혼례는 식이 진행되는 동안,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덕담도 하고 슬쩍 우스갯소리로 하며 흥겹게 진행되는 마을의 잔치였지.

2.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듣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식이 진행되는 동안 덕담도 하고 슬쩍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은 혼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병풍 앞에 선 학식이 높은 노인(C)은 혼례의 순서를 말해 주고 그에 따라 식을 진행하는 인물이므로 덕담을 해 준다는 반응은 옳지 않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이가르닉 효과’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하게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여러 사람에게 주문을 받은 후 음식을 전달할 때까지는 주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만 음식 전달이 완료된 후에는 그 내용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이가르닉’은 완성되지 않은 과제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이 긴장이 기억을 유지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일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던 일이 중도에 멈출 경우,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 하기 때문에 수행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일이 완성되고 나면 그 일과 관련된 기억은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케팅에서도 ‘자이가르닉 효과’를 적용시킨다고 하네요, 바로 광고를 연속극처럼 시리즈로 제작한 ‘티저 광고’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지요. 즉 끝을 맺지 않은 내용을 계속 제공하여 결말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 소비자가 그 상품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학습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은 ③이다. 듣기 내용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는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하게 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해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학습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4, 5번〉 이번에는 ‘학부제와 학과제’에 관한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는데, 1년 동안 학과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시간만 낭비할까 봐 걱정이 돼. 자신의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부제’보다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입학하는 ‘학과제’로 대학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여학생 : 얼마 전 자신이 전공하기를 원하는 ‘지원 희망 학과’를 조사했는데, 어떤 학과를 정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못 잡겠더라. 입시에 치중하느라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자신의 세부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래서 난 자신의 적성을 좀 더 탐색할 수 있고, 그 이후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 학부제가 지속됐으면 좋겠어.

남학생 : 그래도 난 학과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대한대학교 입시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학부제로 뽑으면 관심 분야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기회가 적어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가 부족해진다고 하더라구. 그런 점에서 학과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

여학생 : 그렇지만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겸비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잖아. 대학교 입학 때부터 세부 전공을 정하면 자신의 분야만 잘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세상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요구하는데, 학과제에서는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네 생각에는 학과제에선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학생 : 전공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학과제도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자신의 전공분야를 선택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학생 : 그래, 학과제에도 그런 보안을 통해 전문성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있지.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과학 이론을 발견한 과학자라 해도 그것을 명료한 글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잖아. 진정한 전문성은 자기 전공 분야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런 걸 배우려면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4.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학부제와 학과제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남학생은 학과제 찬성 입장에서, 여학생은 학부제 찬성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의 질문에 대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제도의 활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만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인 바는 없다. ㉡에서 얼마 전 실시한 희망 지원 학과 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진로와 적성에 대해 고려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학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제 찬성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에서 ‘대한대학교 입시담당자’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에서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겸비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과제 선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에서 ‘학과제에도 그런 보안을 통해 전문성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있지’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일부 인정한 후 과학자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정보 파악하기

두 학생은 각각 학부제와 학과제의 찬성 입장에 서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신만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①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완성, ② 폭넓은 교양을 통한 인성함양, ③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학문 연구의 필요성, 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쓰기]

6. [출제의도]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연상하기

① 날개의 다양한 색에서 추출한 ‘다양성’이라는 의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와 연계하기 어렵다. ② ‘사물을 판단할 때 치우치지 않는 태도’와 ‘균형감’은 연결할 수 있다. ③ ‘통찰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수용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연계한 연상이다. ④ ‘적용력’은 ‘상황에 따라 탐구방식을 달리한다.’와 연관지을 수 있다. ⑤ ‘분별력’을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분하는 것’으로 연상한 것은 자연스럽다.

7. [출제의도] 자료해석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는 사과와 감귤재배 지역의 변화를, (나)는 농가를 경영하는 사람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반도 기온을 세계 평균기온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④ (다)에서 기후변화가 세계 평균보다 크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생산품목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①에서 (가)를 통해 품종에 따라 재배지역이 달라졌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에서 (가)의 지역별 생산 품종의 변화와 (나)의 농촌 고령화를 근거로 농업 정책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③에서 (가)와 (다)를 통해 사과와 감귤의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난대성 작물인 감귤의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확산하는 것의 원인이 기후변화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와 (다)에서 ‘기후 조건에 따른 품종 변화’를 (나)에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농업 정책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농촌의 현실에 종합적으로 대비한 재배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

8. [출제의도] 주어진 글감을 참고하여 개요 수정하기

<보기>에 제시된 개요는 가족 여가 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문화 자체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실태(문제점)를 살핀 후,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④ <보기>의 30대 직장인이 가족 여가문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Ⅱ-2-다’(공공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여가 프로그램)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Ⅱ-2-다’는 내용 수정 없이 ‘Ⅱ-1’(문제점)의 하위항목이 아니라 ‘Ⅱ-3’(개선방안)의 하위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① <보기>에서 40대 가정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여가 시간의 확대에 비해 적절한 가족 여가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족 여가 문화의 필요성을 서론에 추

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30대 직장인은 일부 위락 시설에 편중된 가족 여가의 문제점과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내용 중 위락 시설에 편중된 가족 여가의 문제점을 ‘Ⅱ-1-가’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내용을 ‘Ⅱ-1’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10대 청소년은 부모님과 여가를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캠프’ 이전까지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가족 문화를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부재(不在)’가 가족 여가문화를 형성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므로 ‘Ⅱ-2’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족 여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Ⅲ’ 항목의 내용은 ‘가족 여가 문화를 위한 의식 개선’이라는 인식적 차원의 결론보다는 ‘내실 있는 가족 여가 문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을 찾기

② ‘소나무와 당신의 만남, 옛 성현과 후학의 만남’에서 ‘대구적 표현’을, ‘사철 변치 않는 푸르름은 당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에서 ‘비유’와 ‘소나무 정신관의 성격’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①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③은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소나무 예술관의 성격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④와 ⑤는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각 수준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②에서와 같이 수정하면, ‘우리가’와 호응하지 않는, 불필요한 피동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어법 이해하기

②는 용언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보조용언 ‘못하다’를 쓰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못하-’의 형태로 써야 한다. ①은 <보기>의 ‘못하-’의 두 번째 경우에, ③은 <보기>의 ‘못 하-’의 경우에, ④는 <보기>의 ‘못하-’의 네 번째 경우에, ⑤는 <보기>의 ‘못하-’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바르게 사용되었다.

12. [출제의도] 유사한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① ㄱ은 ‘전염적인 대상’과 ㄴ은 ‘이동적인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이고, 시각적 대상이 넓어진 것은 ㄷ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ㄴ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 경우이다. ③ ㄷ은 물질의 상태가 변한 경우이다. ④ ㄷ, ㄹ의 ‘교체’는 사람과 사물에 모두 쓰여 서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⑤ ㄹ, ㅁ은 대상과 대상을 서로 바꾸거나, 교환하는 것이므로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13~15] 예술 제재

<출전> 이주헌,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13. [출제의도]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하기

‘벨베데레의 토르소’는 원래의 모습이 아닌 파손된 상태로 발굴된 조각물이다. 파손된 상태이지만 이 조각물에선 새로운 미적 특질이 느껴지는 미완성의 미학을 보여준다. 즉 훼손되었지만 그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예술품이다. 이런 상황과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⑤에서 학생은 ‘신라인면와당’이 원래 모습과 달리 깨져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과 비슷하다. ①의 ‘피라미드’는 균형미를 ②의 ‘모나리자의 미소’는 신비함을 ③의 ‘고분벽화’는 복원된 후의 아름다움을 ④의 ‘첨성대’는 실용과 예술이 조화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느끼는 것과는 다른 예술적 가치이다.

14. [출제의도]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추론하기

㉠의 이유는 근대 조각가들이 파손된 고대 조각 작품에서 신선한 아름다움 또는 미완성의 미학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 이후의 문단에서 ‘다양한 표정의 절단을 통해 인체의 볼륨과 선이 주위 공간과 어떤 조화 혹은 긴장을 자아내는지’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①의 공간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미가 형성된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② 완전한 형상의 조각품은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되지 않으며, ③ 근대 조각가들의 ㉠과 같은 시도를 통해서 조각가는 단순한 형상의 창조자에서 공간의 창조자로 평가받은 것이므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며, 답지의 진술을 추리할 만한 근거도 없다. ④와 ⑤는 조각물과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에서 먹[墨]으로 그려진 그림은 실(實)이고, 여백은 허(虛)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조각에 적용하면 ‘실’은 조각의 ‘물질’(조각)에, ‘허’는 조각의 ‘빈 공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네거티브 볼륨’에 따르면 조각물의 구멍이나 파인 부분도 단순한 ‘빈곳’[虛]이 아니라 작품의 구성요소 즉 실(實)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③에서 여백[虛]의 의미가 강화되면 여백은 단순한 허(虛)가 아닌, 실(實)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 ‘네거티브 볼륨’의 의미와 가장 근접해 있다. ①의 ‘소재에 따라’ ②의 ‘사실성 부각 정도에 따라’ ④의 ‘표현의 치밀함에 따라’ ⑤의 ‘상징적인 의미가 큰 작품일수록’ 등의 전제 조건은 지문 및 <보기>를 통해서 유추하기 힘들며, 허(虛)를 실(實)로 볼 수 있다는 언급도 없으므로 모두 적절하지 못한 진술이다.

[16~19] 인문 제재

<출전> 송관재 외, 「인간 심리의 이해」

16.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기

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험이 자아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내용의 근거는 여섯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언어나 행동의 습관은 선천적인 특성이므로 불변한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②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는 자신에 대한 회생을 전제로 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다섯 번째 단락에서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지만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진술이다. ④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자아 성장 단계의 특성이란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 정보를 이해하여 적용하기

④ 미지 영역이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미지 영역이 넓어지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결점을 감추는 데 급급해 고립감이 깊어진다.’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① 공통영역이 넓어지면 서로간의 정보가 공개되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친밀해진다고 하였으므로 갈등 수준은 낮아진다.

② 맹점영역이 넓으면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행동을 할 수 있다. ③ 사적영역이 넓어지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 타인과의 친밀도가 약화될 수 있다. ⑤ 공통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숨기려 했던 비밀들도 좀 더 쉽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1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반응하기

⑤ <보기>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말하는 미지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①의 주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②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서 느끼는 성취감, ③ 봉사를 통한 타인과의 관계 개선은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반응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또한 ④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1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④는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자신만의 벽’이라는 의미가 적당하다. ①, ②, ③, ⑤는 올바른 사전적 의미이다.

[20~25] 시가복합 제재

<출전> (가) 신석정,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나) 오세영, 「등산(登山)」

(다)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20. [출제의도] 시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세 편의 시는 공통적으로 시적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산’, ‘너그럽고’, ‘꽃 그늘에 자고 이는 구름과 구름’, ‘오늘은 무척 부러워’,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등의 구절에서 자연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서는 ‘암벽(岩壁)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라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등의 구절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흐리리’ 등의 구절에서 자연 속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② (가)에서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산’, ‘꽃 그늘에 자고 이는 구름과 구름’,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등의 구절에서 ‘푸른 산’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가 이상을 추구하면서, 너그럽고, 포용력 있게 살고 싶은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빛을 찾아서’,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벌레처럼 무명(無明)을 더듬는다’ 등의 구절에서 화자 자신을 ‘무명의 벌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암벽’이라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자연물을 통해 욕심내지 않고, 신중하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로 묵묵히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 (가)에서 ‘내 몸이’, (나)에서 ‘내 것이’ 등으로 화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 있고, ③ (가)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에 대한 서술과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간의 이동으로 변화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④ (가), (나)에서 공감각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와 (나)는 자신의 지향

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지 대상에게 말을 거는 형식이 아니다.

22.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비교·대조하기

⑤ (가)의 ‘조심스럽게’ ‘더듬어’ ‘접근하는’ 등의 구절을 통해 ㉠ ‘암벽’을 오르는 화자의 신중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나)의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등의 구절을 통해 ㉡ ‘청산’은 자연의 속성을 통해 일관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공간이다. ① ㉢은 회상의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삶의 지향점을 깨닫는 공간이다. ② ㉣은 고뇌의 공간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③ ㉤에서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나, ④ ㉥에서 화자의 과거 상태는 찾을 수 없다.

23. [출제의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를 비교·대조하여 감상하기

(가)의 [A] ‘구름’은 조화롭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으로서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나)의 [B] ‘백운’은 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일깨우고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이다. ①은 ‘백운’이 자연의 긍정적 상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②는 ‘백운’이 산과의 조화를 이루어 ‘보기 좋은’ 자연을 뜻한다는 점에서, ③은 ‘백운’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현재 화자가 구름과 함께 산에 있는 상태임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④는 ‘구름’의 자유로움과 조화로우며 지향하는 화자의 동경이 담겨 있고,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백운’에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각각 정답과 거리가 있다.

24. [출제의도] 시를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나)의 3연에서 ‘벼랑에 뜨는 별’, ‘피는 꽃’, ‘이슬’은 화자가 암벽을 오르는 동안 만나게 되는 존재들로서 아름답지만 유한성을 지닌 시어들이다. 화자는 ‘암벽’이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함부로 올라다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④에서 ‘별’, ‘꽃’, ‘이슬’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작가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연관하여 시를 이해하기

<보기>를 통해 작가가 고향에 내려간 이유는 벼슬에 뜻을 두기보다는 학문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을 벗 삼아 허물없이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한탄과 좌절에 빠진 선비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답지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를 통해 화자는 관직보다는 자연을 벗 삼아 자기수양에 힘쓰고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 ‘천석고향’은 자연을 그리워하는 병으로 고향에 내려가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기>에서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기에’라는 것을 통해 ③의 만권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 관직을 사퇴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와 관련하여, ‘우부’도 쉽게 할 수 있으나 ‘성인’도 어려워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학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화자가 학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면학하는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29] 기술 제재

<출전> 홍기용 외, 「한국 연안의 해역특성을 고려한 파력발전 방식의 적용성 분석」

26. [출제의도] 독해를 통한 지문의 주요 정보 파악하기

지문은 파력발전의 중요성과 현황, 파력발전의 종류별 작동 원리 및 우리 연안의 파력발전 조건 등을 설명한 글이다. <보기>의 ㄱ은 파력발전의 한 종류인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의문인데, 이는 두 번째 단락에서 ‘에너지 효율 변환이 높다’는 점과 ‘구조적 면에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다. ㄴ은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파력발전의 조건상 우리나라 연안(해안)의 상황에 대해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파력발전의 종류와 관련지어 특정 구조물의 형태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즉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연안의 파고 및 파력주기’만으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ㄷ은 네 번째 단락 끝부분의 ‘수위차의 정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므로’라는 구절을 볼 때, ‘월파형’ 파력발전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불리한 이유가 직접 언급되어 있다. 또한 글의 세 번째 단락에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의 경우 전력 발전 단가가 높은 섬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는 언급은 되어 있으나, 어떤 원리나 이유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ㄹ은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보기>의 ㄱ~ㄹ 중, 위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ㄱ과 ㄷ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적용하여 원리 이해하기

<보기>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의 구조를 설명한 그림으로서, 파도가 전면에 부딪히며 공기실 내부로 유입될 때 수면이 상승 및 하강함에 따라 공기실 내부의 공기도 압축, 팽창하게 되어 공기의 흐름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원리를 설명한 그림이다. ③ 파고가 높아지면 장치의 전면에 부딪히는 파랑에너지가 높아지고, 유입되는 물의 양은 증가하므로 공기실 내부의 공기는 팽창이 아니라 압축된다. ① ‘파도의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말은 ‘파도가 자주 친다’라는 의미인데, 파도가 자주 치면 공기실 내부의 수위 변화가 활발해지고 그만큼 공기의 압축 및 팽창도 활성화된다. 공기의 압축과 팽창이 찾아진다는 것은 터빈이 그만큼 자주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② 공기실로 유입되는 파도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져 공기의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④ 공기실의 압력이 높아지면 노즐을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기계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므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⑤ 제시문에서 ‘수면이 상하로 움직이면 공기가 압축되거나 팽창한다’라는 구절에 착안할 때, ‘수면 상승→공기 압축→노즐을 통해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감’과 그 반대 경우인 ‘수면 하강→공기 팽창→노즐을 통해 외부의 공기가 유입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공기흐름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

28. [출제의도] 서술방식에 따른 정보 파악하기

<보기>는 ‘월파형’ 파력발전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③ 파도가 경사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물의 위치에너지가 기계장치의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파랑에너지가 물의 위치에너지 상태로 변환되는 1차 변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답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파랑에너지가 변환되기 이전의 상황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B는 장치의 전면부에 있는 경사면인데, 파력발전 장치를 향해 진행해 온 파도가 경사면을 타고 상승하면서 위치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점에 착안하면 경사면은 파랑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구조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당한 진술이다. ④ 파도가 경사면을 타고 올라 경사면 후면에 설치된 저수시설로 떨어

어지기 전까지는 파도와 저수시설 사이의 수위 차에 의해 물의 위치에너지가 증가되는 상태이다. ⑤ 경사면을 타고 올라 위치에너지가 생긴 물이 저수시설로 떨어져 기계 운동 장치인 터빈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물의 위치에너지가 기계장치의 운동에너지로 2차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답지의 진술은 타당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적용하여 원리 이해하기

① 미리 짐작하는 것은 ‘예견’이다. ㉠ ‘고찰(考察)하다’의 경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다’의 의미이다. ② ① ‘구동시키다’의 경우 ‘기관차를 구동시키다’에서처럼 ‘(동력을 가하여) 움직이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③ ㉢ ‘변환하는’의 경우 ‘(성질, 상태 등을) 바꾸다’라는 의미이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④ ㉡ ‘저수’의 경우 ‘이 댐은 천만 톤까지 저수할 수 있다’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물을 모아둔다’는 의미이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⑤ ㉣ ‘생각해볼’의 경우 문맥을 고려하면 ‘(조건이나 상황 등을) 잘 미루어 헤아리거나 생각하다’라는 의미이므로 ‘형세를 살피다’의 사례에서처럼 ‘살피다’라는 의미이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30~32] 사회 제재

<출전> 박유영, 「경제학원론」

30.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④ 경기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그 원인을 경기순환과 관련지어 분석적으로 제시한 글이다. ① 논의 대상에 대한 통념과 오류에 대한 반박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논의 전개도 없다. ② 논의 대상의 변화 과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도 아니다. ③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비교는 없으며, 공통 특질에 대한 언급도 없다. ⑤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내용을 경기순환 4국면의 그래프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⑤ 3문단에서 소비자는 회복국면에서 경기지표가 상승해도 완전한 경기 회복을 체감해야 내구재를 구입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① 기업의 고용변화는 경기후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황국면에서 기업은 경기지표가 하락하더라도 고용을 줄이는 결정을 가급적 자제한다. ② 불황국면에서 소비자의 체감경기는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지표 상승을 따라 회복되지는 않는다. ③ 3문단에서 ‘경기 회복 시에 체감 경기가 경기지표보다 늦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국면에서 소비자의 체감 경기가 경기지표가 보다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④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의 체감 경기의 회복은 상당히 늦어진다. 또한 기업은 경기지표만 보고 설비투자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32. [출제의도] 유추를 통해 논의대상의 상황 이해하기

⑤ 경기 상승에 대한 체감과 지표경기 상승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아랫목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와 따뜻해진 방안의 온기를 느끼는 시기의 시간적 차이에서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 아랫목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변화는 지표경기의 상승으로, 따뜻해진 방안의 온기를 느끼는 것은 체감경기의 상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환경에 적응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 경우이므로 오답이다. ② 한계점을

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오답이다. ③ 착시 현상에 의한 착각이므로 오답이다. ④ 주변 상황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33~36] 고전소설 제재

<출전> 작가 미상, 「심청전」

33. [출제의도] 작품을 읽고 내용 추리하기

① 넷째 단락 첫 부분에서 옥황상제는 사해용왕에게 심청을 구하라는 분부를 내리고 있다. ② 망녀대를 지은 사람은 도화동 사람들이 아니라 승상부인이 지었으며, 도화동 사람들은 비석을 세웠다. ③ 승상부인은 심청이가 죽은 것은 슬퍼하지만 심봉사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④ 심봉사가 심청을 본 것은 실체가 아니라 꿈에서 본 것이다. ⑤ 심청은 자신이 친한 신분이라고는 느끼지만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공간변화에 따른 구조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이 작품은 현실 → 용궁 → 현실로 현실계와 이상계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 작품이다. ① 지문의 내용에서 심청이 공간Ⅱ를 미리 염두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② 용왕은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고 심청을 연못에 써서 임당수로 보낸다. ③ 심청은 공간Ⅱ를 거침으로 공간Ⅲ에서 황후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Ⅱ는 공간Ⅰ에서 공간Ⅲ으로 가기 위한 통과제의적 공간이며 양쪽 공간을 경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④ 심청이 공간Ⅲ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옥황상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⑤ 공간Ⅰ과 공간Ⅲ은 모두 현실 공간이지만 성격은 서로 다르다. 공간Ⅰ은 결핍 공간으로 불완전한 공간이며, 공간Ⅲ은 결핍이 해소되는 완전공간이다.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⑤ 겸양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계체’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① ‘어둠 침침 빈 방안에 불 켜 듯이 반가웁고’등의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 ② ‘심봉사가 그제사 눈 뜬 줄 알고 사망을 살펴보니 형형색색 반갑도다. 심봉사가 어찌 좋은지 와락 달려들어’ 등의 부분에서 서술자가 심봉사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③ ‘어둠 침침 빈 방안에 불 켜 듯이 반가웁고, 어둠던 눈을 뜨니 황성 궁중 웬 일이며’ 등의 부분에서 관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운율감이 느껴진다. ④ ‘감았던 눈 뜨니 천지 일월 반갑도다’, ‘일췌구 좋을씨구 이런 경사 어데 있나’등의 부분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기쁨을 고조시키고 있다.

36.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파악하기

② ㉠의 상황은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 살아 돌아와 황후가 된 후 심봉사와 만나는 장면이다. 심봉사는 딸을 만난 기쁨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는 뜻의 ‘반신반의(半信半疑)’가 적당하다. ① 기고만장(氣高萬丈)은 ‘기운이 굉장히 뻗어 있었다’의 뜻으로 ㉡상황에는 적절치 않다. ③ 선우후락(先憂後樂)은 ‘세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 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④ 점입가경(漸入佳境)은 ‘점점 더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⑤ 일장춘몽(一場春夢)은 ‘인생의 부귀영화는 한바탕의 봄꿈과 같다’는 뜻이다.

[37~40] 과학 제재

<출전> 폴 헤위트, 「알기 쉬운 물리학 강의」

37.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핵심 정보 파악하기

지문의 <그림 1>은 움직이지 않는 파원이 제자리에 서 진동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수면파이다. 이때 파동의 속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기 때문에 동심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관측을 하던 동일한 진동수를 관찰하게 된다. <그림 2>는 파원의 진행 속도가 파동의 속도보다 느린 경우에 생기는 수면파이다. <그림 3>은 파원과 파동의 속도가 일치할 때 생기는 수면파이다. 셋째 단락에 의하면 별래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별래가 발생시키는 진동수는 변함이 없지만 관측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진동수를 느끼게 된다.

38. [출제의도] 유사한 사례 찾기

㉠은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파원이나 관측자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진동수의 변화를 도플러 효과라 부른다. ④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사례이다.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 그 경적 소리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자동차가 사람을 향해 다가올 때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음의 경적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것은 음파의 마루들이 사람을 더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반대로 차가 사람을 지나 멀어져갈 때는 더 낮은 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것은 음파의 마루들이 사람을 더 적게 통과하기 때문이다. ①은 전자기파의 일종인 적외선이 유리를 통과할 때 분자들을 진동하게 하여 열을 발생하게 하는 사례이다. ②는 원심력에 대한 사례이다. ③은 중력은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는 ‘역제곱의 법칙’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⑤는 정상파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39.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로 추론하기

<보기>의 원추형 그림은 선수파를 나타낸 것이다. 선수파는 파원의 속력이 파동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파동의 형태이다. 이렇게 파원의 속도가 파동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V자 모형의 원추가 만들어진다. 파원의 속력과 파동의 속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V자의 각은 더 좁아지게 된다.

40. [출제의도] 문맥으로 다의어 의미 파악하기

㉡의 의미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이다. ①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 ②와 ③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 ④ 예식이나 계약 따위를 진행되게 하다. ⑤ 뜻한 대로 되게 하다.

[41~44] 현대소설

<출전> 김원일, 「어둠의 혼」

41.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에 따른 효과 파악하기

③ 아버지와 대화 장면을 떠올려 그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고백적 문체로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간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②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여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시간의 흐름은 있으나 인물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⑤ 어린 아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현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시대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찾을 수 없다.

42. [출제의도] 서사구조의 시간성 파악하기

③ [회상2]의 내용은 아버지가 주변인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 해방이 되던 날 만세를 부르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 아니다. 또한 ㉠뒤의 ‘그런데 언제쯤부터인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회상2]보다 ㉠이 시간상 먼저임을 판단할 수 있다.

① [회상1]의 행위는 해방이 되던 날 아버지가 만세를 부른 것이다. ㉡의 행위는 아버지가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의 행위는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 때에 대한 진술이다. ② [회상2]의 내용은 재작년 겨울부터 아버지가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산길을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의 상황은 아버지의 죽음이다. [회상2]에서 아버지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뛰고 싶어서 뛰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청개구리 말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개구리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다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회상3]의 대화 내용은 아버지와 산책할 때 ‘청개구리’에 대해 한 말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당대의 이념적 행위를 하면서 고뇌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의 행위를 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관련된다. ⑤ [회상3]의 아버지가 한 말 중에 ‘요 꼬마놈은 ~자기가 뛰고 싶어 뛰니까’라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의 상황을 이미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감수하려는 심적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출제의도] 핵심적 어휘를 통한 내재적 의미 파악하기

④ ‘청개구리’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청개구리가 ‘하늘에 닿아보려고 뛰지만 결국은 하늘에 닿지 못하지’라는 부분, ‘자기가 뛰고 싶어서 뛰지.’라는 부분을 통해 아버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서술시점이 변하는 장면은 없다. ②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라는 연결고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인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물로 볼 수는 없다. ③ 인물의 심리가 전환되는 소재가 아니라 심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⑤ 아버지의 삶에 대한 진술에서 현실에 대한 고뇌와 의지를 파악할 수는 있으므로 비판적 성격이라 해석할 수 없다.

44. [출제의도] 서술시점의 특수한 효과와 관련지어 내용 이해하기

이 소설의 ‘나’, 즉 ‘어린 화자’에 의한 서술상의 효과와 더불어 내용에 대한 파악을 묻는 문제이다.

④ ㉡ : 이 질문은 가족 수난의 제공자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굶려 주려는’ 어린 아이의 장난으로 시작된 것이다. ① ㉡ : 아버지의 행위로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순경들이 들락거렸던 기억은 당시대의 분위기로 인해 가족들이 겪은 남다른 체험을 보여준다. ② ㉢ :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산길을 타고 다닌 아버지의 ‘요술’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녔던 사상적 배경의 내용을 ‘어린 아이’의 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이념의 문제를 현실인식이 미숙한 소년의 어투로 구사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③ ㉣ : 아버지와 평온했던 시절에 대한 회상 장면이다. 이 부분에서 ‘고왔단’, ‘좋았단’ 등의 감정을 서술한 부분을 통해 서술자가 아버지와의 추억

에 대한 그리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 ‘세상’이 어느 것 하나를 정답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아버지의 말은 당시 현실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아버지의 이념적 고뇌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45~47] 언어 제재

<출전> 이익섭, 「국어학개설」

45. [출제의도] 단어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이해하기

① ‘누나’의 단어장은 ‘오빠’의 단어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빠’가 상위어라 할 수 없다. ②한국어는 ‘손위’의 경우에만 성(性)에 따라 의미영역의 차이를 보이고, ‘손아래’의 경우에는 성(性)에 따라 의미영역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③‘brother’와 ‘sister’의 단어장은 성별(性別)만 구분하며, ‘손위’와 ‘손아래’라는 의미차질은 없다. ④우리말 ‘동생’의 단어장은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동생’을 영어로 번역할 때 ‘brother’와 ‘sister’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brother’와 ‘형, 오빠’의 단어장의 크기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어휘 구조의 차이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46. [출제의도] 성분분석을 통해 단어의 의미자질과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 파악하기

① 반의관계는 의미자질이 하나만 다를 때 성립한다. ② ‘딸’과 ‘아들’을 통해서 같은 계열의 단어는 상위어가 같음을 알 수 있다. ③ 해당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로, 그렇지 않을 때는 ‘-’로 표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딸’과 ‘아들’처럼 같은 의미자질이 많을수록 단어 사이의 관련성이 크다. ⑤ [-남자]와 [-수컷]은 모두 성(性)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① ‘부추’를 지역에 따라 ‘술’, ‘줄’, ‘정구지’ 등으로 부르는 것은 사고체계의 다양성이 단어장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지역에 따라 달리 말하는 방언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② 눈에 대해 단어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눈에 대해 그 지역 언중들의 사고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③ 바람의 명칭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바람에 대해 그 지역 언중들의 사고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④ 온도에 대해 단어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 언중들의 사고체계가 온도에 대해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⑤ ‘잠’, ‘불’ 등의 어휘는 바다 속 바닥에 대한 그 지역 언중들의 사고체계의 세분화를 보여준다.

[48~50] 시나리오 제재

<출전> 김승옥 각색, 「안개」

48.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통한 추론하기

「안개」는 김승옥 원작 「무진기행」을 자신이 직접 각색한 작품이다. S#4~7 부분은 주인공 ‘윤’이 자신의 고향 ‘무진’으로 가기 전 방 안과, 고향으로 가는 침대차(기차) 안 장면으로 회상 기법(과거와 현재의 교차 기법)을 통하여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시켜, 주인공의 내면적 고뇌를 세련되게 담아내고 있다. S#24 부분은 무진의 이모 집 건넌방 장면으로 ‘박’이 ‘윤’을 찾아와 만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는 ‘윤’과 ‘박’

의 대화를 효과음 처리하고 과거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윤’, ‘박’, ‘조’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정보와 책을 읽고 있는 장면, 문신을 새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특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S#25 부분은 현재→과거→현재로 장면 전환하여 등장인물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은 S#24 후반부 [현재]부분의 대화를 통해 ‘박’이 ‘조’의 근황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는 S#4의 내용을 보면 ‘아내’가 ‘윤’의 뜻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③은 S#24를 보면 ‘윤’은 오랜 만에 만난 ‘박’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내며 ‘박’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윤’은 ‘박’에 대해 부정적이라 볼 수 없다. ④는 S#24의 ‘박’의 대사 중, 웬일이 십니까?, 이번엔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가요,를 통해 ‘박’은 ‘윤’의 귀향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는 S#24의 ‘윤’의 마지막 대사 내용으로 보아 ‘윤’이 ‘조한수’의 출세에 대해 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9. [출제의도] 원작과 비교를 통해 글의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⑤는 ‘윤’과 ‘박’의 현재 대화를 효과음 처리하여 과거 장면에 중첩시킴으로써 ‘윤’, ‘박’, ‘조’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정보와, ‘윤’, ‘박’의 책을 읽고 있는 장면과 조한수가 문신을 새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인물들의 특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여기서 효과음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음향 처리한 것을 말하며 이는 인물의 갈등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과거장면을 삽입하기 위한 의도이다. ② 위 글에서 독백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③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A]에서는 오히려 <보기>의 표현을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④원작과 비교하여 [A]부분에 대사로 각색하여 새로 추가된 사건은 없다.

50. [출제의도] 시나리오 기법 이해하기

② S#5의 가로등은 S#6의 전등과 연계되고, S#7의 전등불은 도회의 불빛과 연계되고 있다. 그런데 S#7에서 전등불은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이므로 이 부분에서 ‘윤’이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S#5와 S#6은 ‘가로등’과 ‘전등’이 연계되어 현재에서 과거로 장면전환 되어 ‘윤’의 생각을 기동성 있게 보여준다. ③ S#6과 S#7은 하루살이가 중간 매개물이 되어 ‘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연계하고 있다.④ S#7에서는 장인 목소리와 기차의 굉음소리를 연계시켜 장인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로 인식하는 ‘윤’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해 고뇌를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⑤ S#25에서는 현재(‘윤’과 ‘박’, 나무 그림자 곱다.)→과거(‘윤’, 나무 그림자 무시무시하다.)→현재(‘윤’과 ‘박’, 나무 그림자 곱다.)로 전환시켜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